

스티븐 D. 매튜슨 박사, 구약 이야기 설교, 제4강: 주석 과정 개요 [사도행전]: 등장인물 분석 및 대화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내러티브 설교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성경 해석 과정 개요, 등장인물 분석,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약 내러티브 설교 강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텍스트 해석, 즉 텍스트의 의미를 도출하고 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살펴봐야 할 특징들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으로 '막(act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었죠. 연극이나 소설의 1막, 2막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A는 줄거리(plot)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줄거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와 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는 등장인물을 의미하므로 줄거리, 즉 사건 전개 방식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옛 랍비들의 말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어쩌면 정반대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야기를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흥미로운 존재 아닌가요? 줄거리가 있고 사건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은 등장인물입니다. 따라서 줄거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등장인물을 살펴볼 때는 줄거리에 맞춰 그들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등장인물 분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저도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문학 연구자, 심지어 구약 연구자들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등장인물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요 등장인물과 조연 등장인물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 구분은 단순히 이야기 속에서 등장인물의 역할 크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문학 연구자들은 주요 등장인물을 분석할 때 몇 가지 다른 범주로 나누는데, 이러한 분류 방식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에서 이런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문학 연구자나 심지어 성서 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라는 용어가 있죠. 주인공은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줄거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런 등장인물들은 종종 이야기의 영웅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 그룹은 우리가 악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단어에 익숙합니다. 주인공이 있고, 적대자는 주인공의 주요 적수 또는 주인공에 맞서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대조적인 인물(foil)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주인공과 대조를 이루며, 주인공과의 대비를 통해 주인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줍니다. 때로는 유사점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러한 범주들은 서양 문학 분석에 자주 사용되지만, 결국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서양 문학, 심지어 찰스 디킨스의 영국 문학 등에도 사용되는 이러한 범주들은 여전히 꽤 잘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을 단순히 하나의 꼬리표로 규정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에 그 꼬리표를 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특정 등장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보죠. 제가 굳이 그 명칭을 바꾸려는 건 아니지만,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부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두 주인공, 즉 다윗과 사울 사이의 대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다윗이 비록 새로운 가문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위에 오르려면 반드시 지배 가문 출신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의 혈통이 아니죠. 따라서 이 책의 해당 부분에서 화자는 다윗이 왕으로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과 사울의 대결입니다. 골리앗은 그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죠.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대조 인물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름표 자체보다 그 기능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분명 영웅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해 보죠. 그는 다윗에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비가일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데이비드와 대조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데이비드는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웅입니다. 다윗은 변화를 겪으며 에피소드 말미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거나 즉위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설득합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 즉위할 운명이었지만, 과연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어리석었다.

그는 못된 놈이었어요. 다윗은 복수하고 싶었죠. 그러자 아비가일이 말했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녀는 그를 설득해서 그 생각을 접게 했습니다. 요점은, 같은 인물이라도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역할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다시 살펴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헛 사람 우리아는 그의 대조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야기의 영웅이 아니잖아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한 욕망 때문에 온갖 죄를 저질렀죠. 간음뿐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밧세바가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야기 전체에서 그녀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실제로 이용당했어요. 데이비드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그녀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그녀를 공범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이름표가 아닙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8장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그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죠. 유다는 중심 인물, 주인공이고, 타마르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있지만, 그들은 비중이 작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목적상, 우리는 살해당한 두 아들, 즉 유다의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들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장인물을 살펴볼 때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물 묘사 방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현대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물 묘사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존 그리섬의 소설 『유언(The Testament)』을 읽었는데, 네이트 라일리라는 변호사가 1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의 뜻밖의 상속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만남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 변호사가 브라질 정글에서 부족민들과 함께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묘사한 그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는 레이첼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이에는 연한 노란색 셔츠가 보였고 , 밀짚모자 아래로는 더 밝은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인디언들보다 키가 약간 컸고, 우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네이트는 그녀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그녀는 매우 날씬했고 어깨는 넓고 뼈가 드러났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그들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자를 벗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갈색과 회색이 반쯤 섞여 있었고 아주 짧았다. 자,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 글썄, 딱히 특별한 건 없다.

서양 문학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죠. 루이스 라무어라는 서양 소설가의 작품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그가 자신의 작품 속 등장인물인 제임스 T. 케틀먼을 묘사한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그의 소설 '플린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는 케틀먼에 대해 "얼굴은 마르고 단단했으며, 삼각형 모양에 광대뼈가 높고, 녹색 눈에 턱선이 강했다. 구레나룻은 당시 유행에 따라 길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에 곱슬거렸다. 빛에 비추면 붉은 기운이 살짝 감돌았다. 피부는 검었고, 눈을 제외한 얼굴 생김새는 무표정했다.

금융가이자 투기꾼이었던 제임스 T. 케틀먼은 잘생긴 남자로 불리곤 했다. 하지만 친절할 남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서양 문학 전통, 특히 소설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들은 인물 묘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샬롯 브론테나 찰스 디킨스와는 대조적으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오히려 간결하고 절제된 문체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 인물 묘사는 마치 빠르게 그린 연필 스케치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로버트 알터는 저명한 문학 학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예술』이라는 획기적인 책을 쓴 유대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의 책 제목이었죠.

이 책은 현재 2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 책은 알터의 업적에 대한 일종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알터는 제가 처음 읽기 시작한 작가 중 한 명이고, 복음주의자들이 서사의 작동 방식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읽기 시작한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장인물의 외모, 버릇과 몸짓, 옷차림과 소지품, 그리고 그들이 운명을 펼쳐나가는 물질적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단서만 주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메이르 스텐버그라는 또 다른 저명한 문학 학자는 우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정교한 묘사는 현실감을 더하는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이야기꾼들이 생생한 묘사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 묘사가 드물다는 것은, 그것들이 나타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이야기에는 의미 없는 대사가 없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다면, 그 세부 사항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끝까지 에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기이하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매우 심오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에훗이 왼손잡이였고 에글론은 매우 뚱뚱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죠. 당시에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에글론, 또는 에훗은 사사입니다. 사실 사사기에서는 그들이 구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왼손잡이라는 걸 왜 알아야 할까요? 글썄요, 알고 보니 그가 에훗 왕을 만나러 갈 때, 세관을 통과할 때, 아시다시피 공항에는 금속 탐지기가 없었잖아요. 몸수색을 했을 텐데, 대부분의 전사들은 오른손잡이였고 칼은 왼손에서 뽑았기 때문에 왼쪽 옆구리를 수색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른쪽 옆구리에서 그걸 뽑아내려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단검에 더 가깝다고 나와 있어요. 큐빗이긴 한데, 큐빗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도 아니거든요.

제 친구 중 한 명인 로슨 영거는 사사기 주석에서 그 단어가 아마도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무언가를 가리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검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왼손잡이입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을 때는 오른쪽을 택할 겁니다. 하지만 세관을 통과할 때는 모두 똑같이 합니다. 대부분의 전사들은 오른손잡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급하면 그의 왼쪽 옆구리만 확인하고는 괜찮으니 가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칼을 몰래 집어넣고, 결국 (스포일러 주의: 아직 원작을 읽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압 왕을 암살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압 왕 에글론을 아주 뚱뚱하다고 불렀을까요? 사실, 제가 성경에는 유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좀 저속한 유머가 있습니다. 어쩌면 10살짜리 남자아이들 이나 할 법한 유머일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에글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송아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가 도살에 적합한 살찐 송아지처럼 묘사되는 거죠.

하지만 모압은 매우 뚱뚱했기 때문에 에글론이 칼을 꽂았을 때 지방이 칼날을 덮었다고 합니다. 시종들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모압을 발견했을 때, 지방이 칼날을 가리고 있어서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죠. 저는 이것이 모압이 매우 뚱뚱했다는 묘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를 조롱하려는 의도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9장 6절에서 요셉이 잘생겼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는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음, 그건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성적인 접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왜 창세기 27장 11절에서 에서를 털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했을까요? 그건 야곱이 에서를 흉내 내려고 했던 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권을 받으려고 털이 난 가죽으로 온몸을 덮었습니다. 거의 눈이 먼 아버지가 그를 만져보면 "아, 네 목소리는 야곱 같군. 그런데 팔에는 털이 많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좋아요, 당신이 에서군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말 중요 해요 . 등장인물들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저자들 과 서술자들은 우리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들은 등장인물의 행동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본성을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이자, 오늘날 교회에도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어보면, 화자는 "이봐, 이 마이카라는 사람은 부패했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예리한 독자라면, 이 부분을 읽고는 '뭐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비도덕적이고, 너무 타락했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서술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자들은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의 행동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토라의 맥락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이야기는 토라에 나오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같은 후대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항상 신명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토라의 다른 책들을 읽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 속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담긴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 해야 할 점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제가 몬태나에 살았을 때, 지역 고등학교 농구 경기의 장내 아나운서를 자주 맡았는데, 그중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 팀들이 뛰는 경기도 있었어요. 그때 토니 휘슬링 엘크나 조너선 테이크스 에너미 같은 이름들을 들었죠. 참, 조너선 테이크스 에너미는 제가 본 최고의 고등학교 농구 선수 중 한 명이에요. NBA에 진출한 선수들도 꽤 봤지만, 그의 이름은 정말 최고였죠. 조너선 테이크스 에너미, 스테이시 빅 헤어, 그리고 엘비스 올드 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였고, 그 이름들은 출생 당시의 상황이나 아이의 삶을 특징짓기를 바라는 미덕을 반영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성경에서도 등장인물들에게 비슷한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구약성경 학자인 장루이 스콧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아주 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뒤에서 불리던 별명 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 이름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다니 믿기 힘들군. 이봐, 바보야, 저녁 먹을 시간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기억나? 그의 첫 이름 말이야? 그의 첫 이름은 아브람, 또는 아브람이었는데, 그 이름은 마치, 그래요, 존귀한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들리잖아.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에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요? 아브람은 자녀를 한 명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또한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존 스탭이라는 성서학자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이사라의 패배에 대한 기록에서 가이사라는 잔혹한 가나안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바락인데, 그의 이름은 번개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의 역할은 다소 수동적이고, 약간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모든 영광은 두 명의 충실한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한 명은 데보라인데, 그녀의 이름은 '꿀벌'을 뜻하고, 다른 한 명은 JL인데, 그녀의 이름은 '산양'을 뜻합니다.

그런데, 딸 이름을 JL로 짓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산양이라고 부르면 딸아이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에 JL이 적군 지휘관에게 영양가 있는 우유를 건네준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물만 원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주었고, 아마도 그것이 그를 진정시켜 잠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바라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군사적인 전투입니다.

그 결과,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룯기는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인데,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합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에서 '엘'은 신을, '이'는 나의를, 그리고 '멜렉'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나의 신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우리가 이미 아이러니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순을 기억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믿는 왕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등지고 기근이 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당신이 시카고에 살면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지만 인디애나폴리스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사할 수도 있고, LA에서 보스턴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기근 때문에 왕의 영토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킬리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그 이름들이 '병약한' 또는 '실패하는'이라는 뜻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그들의 이른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근으로 죽었고, 실제로 기근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였는데, 그 이름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이름에 담긴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자 여인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니요, 저를 상냥하다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는 히브리어로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사다이께서 저를 쓰라리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룯은 이름의 뜻이 우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친구였죠.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빠른 힘'인데, 그는 룯과 나오미를 돌보는 모습에서 그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룯기 4장 1절에서 정말 웃긴 부분은 보아스보다 먼저 룯을 구속할 권리가 있었던 친족 구속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절했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히브리어 표현인 "폴로니 알모니"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무개 씨" 또는 "그 사람 이름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리 와서 앉으세요, 아무개 씨. 참, 가끔 등장인물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기도 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깎아내리는 표현이죠.

그는 그에게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그를 존중해 줄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참 흥미로운 주제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작은

오두막을 지은 곳에 성을 짓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 해야 합니다 .

때로는 모든 이름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주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석은 우리가 어떤 이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이름들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 이즈학이라는 이름이 생각나네요. 그의 이름은 '웃음'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혹은 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라의 웃음소리는 불신의 웃음소리를 기쁨의 웃음소리로 바꿨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웃으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 식사 때마다 웃음을 외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마침내 아들을 얻었을 때, 그녀는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제가 '지칭'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서술자가, 또는 등장 인물이 직접 대사를 통해 어떤 인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른 것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그가 하갈을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면 사라가 이집트 노예 하갈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나 사라는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 제가 말하려던 것은 사라가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묘하지만, 그녀의 경멸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밋세바의 이름을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여자' 또는 '그 여자' 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밋세바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명에서 인물이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죠. 데이비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다윗의 기름 부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의 아들들이 차례로 등장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나오는데, 서술자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까지 그의 이름, 다윗을 밝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의 흥미를 더하는 인물들을 연구하는 데 좋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찰하면서 인물들을 분류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들의 이름은 의미가 있을까요? 작가는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외모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행동(A)에 대해 이야기했고, 등장인물(C)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서술의 특징은 등장인물과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지입니다 .

그러니까 T는 '말하기'를 뜻해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 건 알지만, 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노먼 맥린의 자전적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의 끝부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노먼과 그의 아버지인 존 맥린 목사는 노먼의 형 폴의 비극적인 죽음을 회상하고 있죠.

그는 막내 동생이었다. 그래서 맥린 씨가 아들에게 동생 폴의 죽음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냐고 묻자, 노먼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 별거 아니잖아?"라고 물었고, 노먼 은 " 네 ,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 라고 대답했다.

완전히 이해 하지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 "

음,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는 등장인물들이 한 말에 집중 해야 해요 . 마치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 처럼 말이죠. 그 소설에서도 핵심적인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특히 소설 말미 부분에서 드러나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바로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과 서술자가 덧붙이는 해설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대화는 이야기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점은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버트 알터는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신시아 밀러(현재는 신시아 밀러 날데아)는 창세기의 창조적인 말씀부터 역대기 말미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말이 스며들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수아서는 서사적인 책인데, 1장은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부가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매혹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사울 왕과 선지자 사무엘 사이의 대화와 여호와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시는 몇 가지 지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는 다윗과 사울, 골리앗의 이야기가 또 다른 예입니다. 사건 자체는 오래 지속되지 않지만,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 특히 다윗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로버트 알터는 대화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방금 한 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그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은, 성경의 서술자들이 마음대로 지어내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고 믿습니다. 다만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세부 사항 중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등장인물들의 대화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등장인물들이, 제가 연설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처럼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적어도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특징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서술자가 "에서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저 붉은 것 좀 줘, 붉은 것 좀"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의 서술자이자 작가인 아비가일은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현명하고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다고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그녀가 어리석은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긴 연설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와, 정말 대단하네."라고 감탄할 뿐입니다.

그녀는 정말 현명해요. 그리고 와, 비유를 얼마나 잘 쓰는지! 표현력도 정말 뛰어나네요! 덕분에 우리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엿볼 수 있어요.

둘째로, 등장인물들의 대사는 종종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버트 알터는 대화가 의미의 상당 부분을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예 중 하나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그가 "당신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곧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야기 전체의 의미와 당면한 이야기를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죠.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의 핵심 사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13장이나 17장을 보시면, 제가 34절에서 37절, 그리고 45절에서 47절을 언급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거인과 싸우겠다고 자원했을 때, 사울은 "너는 아직 어려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그는 어려서 부터 용맹한 전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에게 "당신의 좋은 아버지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양을 물어갔을 때, 나는 뒤쫓아가서 쳐서 양을 그 입에서 구해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달려들었을 때, 나는 그 털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당신의 좋은 사자와 곰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작은 표현을 들으십시오. 이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으므로 그들 중 하나와 같을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17장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골리앗과 의 대면 에서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리 오너라. 네 살점을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대적하여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여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희를 쳐서 목을 베겠다. 오늘 내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버리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와 그의 것이며, 그분께서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요약해 주는 것이죠? 즉, 전쟁은 주님의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설, 그것이 짧은 성명이든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과 같은 긴 연설이든 간에, 연설의 세 번째 역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약하는 기능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시적인 구절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장 23절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시를 읊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음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연설, 즉 이 찬양과 기도, 노래는 요약적인 기능을 하며 사무엘서 전체에서 전개될 주제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설은 대조를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의 말과 야곱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두 인물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할 때 요셉이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고 주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거절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보디발의 아내는 단 두 마디로 "나와 동침하자"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단 두 단어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장인물의 대사였습니다. 이제 화자가 하는 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가 내부 정보 또는 편집자의 논평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이야기를 들려주긴 하는데, 가끔씩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참, 등장인물에 대해 이런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화자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문학 학자나 성서 학자들이 전지적 시점의 서술자를 언급하는 겁니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등장인물조차 모르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제가 '내부 정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초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앞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주신 시련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라고 처음부터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랐죠? 창세기 38장은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그 아들이 죽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8장 7절에서 서술자는 우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오난이 다마르를 임신시키기를 거부하고 계대혼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면서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유다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마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서술자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읽거나, 누군가 우리에게 읽어줄 때,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려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 까지 우리는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 과 서술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부 정보 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해석 과정의 마지막 주요 요소인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배경을 다룰 것입니다.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이며,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성경 해석 과정 개요(사도행전), 등장인물 분석, 그리고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